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14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244 (성모의 성월)	188 (천사의 양식)	135 (알렐루야 주 예수)

제 1독서 | 사도행전 10,25-26.34-35.44-48

화답송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좌)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좌)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제 2독서 | 요한 1서 4,7-1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5,9-17

영성체 후 묵상 |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
다.” 우리를 뽑아 세우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친구는 주님께
서 이르신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Today's Gospel, <John 15:9-17>



Jesus said to his disciples: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I have loved you. Remain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remain in his love.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own joy may be in you and your joy be complete. This is my commandment: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A man can have no greater love than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I shall not call you servants any more,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 call you friends, because I have made known to you everything I have learnt from my Father. You did not choose me: no, I chose you; and I commissioned you to go out and to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and then the Father will give you anything you ask him in my name. What I command you is to love one another.'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당신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비밀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친구로 삼으려 먼저 달려 나가심으로써, 가장 큰 축복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이들과 당신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도 보여 주십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복음 강해 77,1」

교황 프란치스코 - 청원 기도에 관하여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혼자 완전히 자기만족에 빠져 살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인간은 청원이며, 때로는 부르짖음이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기 없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시편 63,2 참조).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매 순간 우울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질병과 불의, 친구들의 배신이나 적들의 위협으로 점철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막대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부르짖음과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길을 열고 여정을 엽니다.



가톨릭 -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성당 등의 교회 건물, 스테인드 글라스, 목주, 십자가 등 성물에서 자주 보셨을 기호입니다. 이 기호를 어떻게 읽을까요? ‘피엑스’(PX)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엑스피(XP)도 아닙니다. 그리스어 ‘크리스토스’(ΧΡΙΣΤΟΣ)의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만든 기호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글자라기보다는 기호다보니 ‘그리스도’라 불려도 되고, 사용한 글자대로 읽자면 ‘키’(X)와 ‘로’(P)를 합친 것이기에 ‘키로’라 읽을 수 있습니다. ‘키로 십자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합친 기호를 모노그램이라 하는데요. 특별히 ‘키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노그램을 크리스토그램(Christogram)이라 합니다. 크리스토

그램에는 ‘키로’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IHS’ 혹은 ‘IHC’는 예수(IΗΣΟΥΣ)의 그리스어 표기의 첫 3글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시그마(Σ)가 발음을 따른 S와 모양을 따른 C로 변형된 것이지요.

교회는 예로부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제나 예언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부음 받은 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공경하는 고유한 칭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임금이요, 사제이며, 예언자이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자 메시아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크리스토그램을 발견하셨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 사항

1.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기간: 5월 12일(주일) ~ 6월 30일(주일) (총 8회)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2.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5월 11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는 5월 12일(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초반부 교리는 위의 '여정 - 시즌 1'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5월 성모 성월에 관하여>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온 인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교회는 전례 주년을 통하여 구세사를 기념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는 다르지요. 곧 성모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의 모범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모 성월을 위한 교회의 공적 예식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시기에 묵주 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합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4월 21일	유아·청소년: 26명	성인: 55명
4월 28일	유아·청소년: 23명	성인: 33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5월 5일)	이상명 다니엘, 주정자 루치아
다음주 (5월 12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5월 5일)	요한반
다음주 (5월 12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4월 27일 ~ 5월 3일)

봉 헌 금	\$144			
교 무 금	\$640			
구민식	권묘순	김정수	김천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허준			

| 기도 지향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자 교리를 받을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